

# [1000자 건강 조언] 스케일링만 잘해도 치과 의사 볼 일 없다

기사입력 2003-08-22 14:42 최종수정 2003-08-22 14:42

음식물을 먹고 이를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치아 표면에 치태(Plaque)라는 미세 한 세균막이 형성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치태는 타액 성분과 결합해 딱딱한 돌 덩어리처럼 굳어 치아에 단단하게 붙어 버리고 바로 이것이 치석이 된다.

치석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처음에는 몸이 피곤할 때 염증 때문에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증상이 반복되다가 심해지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이 녹아 내리고 이가 흔들리는 풍치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치태는 이를 잘 닦으면 제거가 되지만 치석은 딱딱하게 굳어져 잇몸 아래쪽까지 파고 들어가 치아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칫솔질을 잘한다 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언제부턴가 TV광고에서 “잇몸이 붓고 피가 나세요? 그렇다면 ○○○를 드셔야 죠. ○○○치약을 써보세요”같은 광고 카피를 심심치않게 접할 수 있다. 바로 치주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나 치약을 광고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광고만 믿고 치주 질환을 약으로만 치료하려는 데 있다. 이런 생각은 마치 가시에 찔렸을 때 가시는 빼지 않고 약만 바르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치주 질환의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약을 쓰더라도 약간의 증상 완화만 기대할 수 있을 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

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약해지고 잇몸이 내려가며 오히려 더 시리다는 이유 때 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스케일링 시 사용하는 초음파 기구는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치석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가 약해지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염증 때문에 부어 있던 잇몸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 잇몸을 내려가게 만드는 것은 치석이다.

또한 스케일링 후 이가 시린 느낌은 치석 제거에 따른 일시적인 감각으로, 잇몸의 염증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1주일 정도 지나면 시린 느낌은 사라진다.

<전태두 강남 화이트스타일 치과 원장>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24&aid=0000005234>

---